

제 1 교시

국어 영역

김성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독성은 텍스트를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한다. 글에서 가독성이 높을수록 독자는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빠른 속도로 글을 읽어내릴 수 있다. 반면 가독성이 낮은 글은 내용과 상관없이 독자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 독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가독성이 높은 글은 독서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에 동기를 부여하는 글을 의미한다.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어휘의 난이도, 글의 주제 등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소도 있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먼저 글의 형식을 눈으로 살핀 뒤, 내용을 읽어낸다. 그래서 형식적 요소는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여 글을 읽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글꼴이다. 글꼴은 글자를 특정한 모양과 스타일로 일관되게 표현한 방식을 의미한다. 글에서 글꼴은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느낌을 결정하기에, 글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글의 형식적 요소는 글의 내용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기도 한다. 이때 글자 크기, 굵기, 밑줄 등과 같은 글꼴 서식이 내용 전달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먼저 글자 크기의 경우 글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 나타내어 강조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글의 구조를 글자 크기로 구분하여 제목과 소제목 같은 표지를 나타낼 수 있다. 굵기와 밑줄도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러한 글꼴 서식은 하나의 텍스트에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이때의 강조 효과는 단일하게 쓰인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글꼴 서식이 남용된다면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글꼴 서식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독자는 글꼴 서식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중요치 않게 여기고, 그 부분을 대충 훑어보거나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글꼴 서식을 통한 강조는 필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그래서 독자는 글꼴 서식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유형과 목적은 글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 ② 글의 형식적 요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 ③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먼저 글의 형식을 본 뒤 내용을 읽는다.
- ④ 글꼴 서식은 필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글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
- ⑤ 가독성이 낮은 글은 내용과 상관없이 독자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2. ㉠에 해당하는 글을 쓰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글을 쉽고 빠르게 읽어내릴 수 있도록 글의 내용을 선정한다.
- ② 글의 분위기와 느낌에 적합한 글꼴을 사용하여 독자가 글을 읽고 싶게 유도한다.
- ③ 글꼴 서식을 어려운 어휘마다 나타내어 독자가 글을 주의 깊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 ④ 제목과 본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글자 크기를 달리하여 글의 구조를 나타낸다.
- ⑤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글꼴 서식을 활용하여 독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다.

3. <보기>의 글을 ㉢의 태도를 바탕으로 읽었을 때,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비 효과의 정의와 유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가 1960년대 초 기후 모델 연구 중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는 초기의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념이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에드워드의 비유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있는가?”라고 말했는데, 해당 비유에서 유래된 말이 나비 효과인 것이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높은 파급력을 가졌다. 가령, <나비 효과>라는 개념의 명칭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온 영화도 있으며, 이를 소재로 한 미디어 작품도 다수 존재할 정도이다.

- ① 제목은 글자 크기를 본문의 내용보다 크게 함으로써 필자가 제목과 본문을 구분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모습이군.
- ② 1문단에서 ‘나비 효과’ 단어를 굵게 표현하고 영어 표현의 글자 크기를 작게 하여 해당 개념을 강조하여 나타냈군.
- ③ 1문단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일부 단어를 굵게 표현함으로써 필자는 해당 내용을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군.
- ④ 2문단에서 굵게 표현된 단어는 개념의 유래와 관련 없는 단어를 강조한 것으로, 해당 부분은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겠군.
- ⑤ 3문단에서 글꼴 서식으로 표현된 내용은 글의 제목과 관련 없이 글꼴 서식이 남용된 내용으로, 독자의 독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정신분석학의 등장을 알렸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의식은 현재 개인이 자각하고 있는 생각, 감각, 지각의 총체를 의미한다. 전의식은 평소에는 의식의 영역 밖에 밀려난 채로 존재하지만, 노력에 따라서 의식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무의식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인식할 수 없는 정신의 심층에 자리한 부분으로, 주체의 이드(id)가 유일하게 위치한 곳이다.

이드는 프로이트가 제안한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선천적인 성적 욕망인 리비도의 원천이 되는 곳이자 이에 따라 인간이 본능적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이드로만 이루어진 채로 태어나서 사회적 관습 등에 따라 이드가 제지받는 경험을 하는데, 이때 또 다른 인간의 성격인 초자아가 형성된다고 ③보았다. 초자아는 이드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드의 표출을 통제한다. 이때 통제된 이드는 억압된 채 무의식에 보관된다. 한편, 이드는 항상 통제되는 게 아니다. 이드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 표출되는데, 이때 이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드와 초자아 간 갈등을 중재하는 성격 요소가 자아이다. 이러한 자아는 초자아와 같이 인간의 모든 정신 영역에 ⑤걸쳐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요소가 상호 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령, 초자아가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드와 자아의 영향력은 약해진다. 프로이트는 이 세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정신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증과 같은 정신 질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⑦이에 프로이트는 정신 질환 증세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그들의 무의식을 연구하였다. 그는 특히 자유 연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자에게 공통된 행동 양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가 자유 연상을 통해 환자의 무의식적 욕망을 ④들추려고 했을 때, 환자는 이를 방어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것들이 표출되지 않게 저항했다는 것이다. 이에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행동 양상을 더 엄밀히 분석하여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나)

프로이트는 욕망이 초자아의 규제와 대립하면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억압되는 이유를 밝히려 했다. 그는 개인의 억압된 기억이 고통스러운 경험과 감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그것에 힘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경험을 조직한다고 보았다. 무의식에 쌓인 억압된 기억은 의식에 영향을 주지만, 인간은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 갈등이 의식화될 가능성을 자아가 감지하면,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갈등을 의식하는 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드와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초자아 간에 비롯되는 갈등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감소시키려 특정 행동을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행동 양상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방어기제가 정신 질환 증상을 ①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즉, 방어기제 자체로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특정 방어기제에 과하게 의존하거나 경직되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이트는 방어기제의 종류로 억압, 억제, 전치, 투사 등을 제시했다.

[A] 억압은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욕망 등을 무의식에 가둬지는 것이다. 억압된 내용은 의식 속에서 존재하지 않을 뿐, 실상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억압된 기억이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반드시 회귀한다고 보았다. 반면, 억제는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식하기 싫은 기억을 전의식으로 밀어두는 것이다. 전치는 불안의 원인이 되는 대상보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전치의 주체는 대상에게 위협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투사는 자신이 가진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것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내부 문제를 외부의 책임으로 ⑥돌리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신 질환 환자의 무의식을 들춰내어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려 했으나, 환자의 방어기제로부터 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먼저 그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원천인 불안을 치료 대상으로 삼고, 환자의 불안 속으로 침투함으로써 방어기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즉, 환자의 무의식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방어기제를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성격 및 행동 방식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무의식과 방어기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졌고, 후대 정신분석학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사상가의 생애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특정 사상가의 이론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 ③ (가)는 핵심 용어를 통해서 특정 이론이 고안된 배경을 설명하고, (나)는 그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사상가가 제안한 개념을 설명하고, (나)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나)는 그 이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가)를 바탕으로 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의식에는 이드, 자아, 초자아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② 무의식은 의식과 전의식을 포괄하는 정신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 ③ 환자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이 표출되지 않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 ④ 인간의 성격 요소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실체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⑤ 무의식은 본능적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듦으로, 인위적인 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비도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인식할 수 없는 정신의 심층에만 존재하고 있겠군.
 - ② 이드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게 본능적 쾌락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 요소이군.
 - ③ 자유 연상은 환자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치료 기법이겠군.
 - ④ 불안은 이드가 초자아와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이 무의식에서 억압될 가능성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증상이군.
 - ⑤ 방어기제는 자아와 초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갓난 아기에게 나타나지 않겠군.

7.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갑은 어린 시절 키우던 병아리가 죽었을 때 큰 충격을 겪었다. 어린 갑은 병아리가 떠오를 때마다 슬퍼져서,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성인이 된 갑은 어린 시절 병아리를 키웠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ㄴ. 회사에서 상사에게 타박받은 을 대리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별것도 아닌 일로 병 사원에게 화를 냈다. 한편, 병은 을의 행동에 속으로 폭력적인 충동이 치밀어 올랐지만, 병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을이 자신을 해치고 싶어서 저런다고 생각했다.

- ① ㄱ에서 어린 갑은 의식하기 싫은 기억을 무의식에 가뒀다.
- ② ㄱ에서 병아리에 대한 기억은 성인이 된 갑의 무의식에서 소멸됐다.
- ③ ㄴ에서 을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은 상사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 ④ ㄴ에서 병은 을에게 있어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다.
- ⑤ ㄴ에서 병은 자신의 내부 문제를 의식적으로 을에게 전가했다.

8. (가), (나)의 프로이트와 <보기>의 융이 서로의 의견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은 그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며 분석심리학을 고안했다. 융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리비도가 한가지 특성만 지닌 질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열 및 예술성 등 어떤 특성도 가질 수 있는 양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융은 무의식에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억압에 의하지 않은 정신적 내용을 담은 집단적 무의식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느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버린 것들을 의식에게 알려주고, 정신적인 균형을 잡아주면서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게 한다고 본 것이다.

- ① 융이 프로이트에게: 선생님께서는 무의식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무의식이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 ② 융이 프로이트에게: 선생님께서는 리비도를 성욕이라는 특성만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셨지만, 이는 리비도의 질적 개념만 중시했을 뿐 양적 개념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③ 융이 프로이트에게: 선생님께서는 무의식을 억압된 이드의 보관소 정도로 치부했을 뿐, 억압에 의하지 않은 정신적인 내용을 담은 집단적 무의식도 존재한다는 점을 모르십니다.
- ④ 프로이트가 융에게: 자네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리비도에 종교열과 같은 후천적 특성을 편입시킴으로써, 리비도가 인간의 본능적 쾌락의 원천이라는 특성을 퇴색시키고 있네.
- ⑤ 프로이트가 융에게: 자네는 무의식이 인간의 의식에 간섭하여 정신적 균형을 잡아준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영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내 주장을 부정하고 있네.

9. 문맥상 ㉔~㉞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㉔: 그 학자는 인간의 가치에 우열이 없다고 보았다.
 - ② ㉔: 그는 계단 난간에 다리를 슬며시 걸쳤다.
 - ③ ㉔: 그는 상황을 엿보기 위해 몰래 천막을 들켰다.
 - ④ ㉔: 사장은 누명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가졌다.
 - ⑤ ㉔: 그는 대출을 갚기 위해 급하게 돈을 돌렸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의사 결정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때 각 행위자는 의사 결정 결과에 따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이에 행위자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 탐구하는 이론을 게임 이론(Game Theory)라고 한다. 게임에 참여한 행위자는 상대방의 선택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라는 존 내시의 말은 게임 이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대표적인 게임 상황으로는 죄수의 딜레마를 들 수 있다. 해당 게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두 명의 공범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분리된 채로 취조를 받는다. 검사 측은 이들에게 만약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최소한의 형벌만을 받고, 둘 다 자백하면 중간 정도의 형을 받으며, 한쪽만 자백하고 다른 한쪽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침묵한 사람은 무거운 형을 받는다고 제안한다. 이때 게임 참여자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결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기대 효용 이론과 전망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대 효용 이론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은 각 행동의 결과에 대한 효용과 그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의 합인 기대 효용이 더 큰 쪽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기대 효용 이론은 절대적 이익을 강조하는데, 이는 기대 효용이 선택의 주체에게 주는 영향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둔 것이다.

이러한 기대 효용 이론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 입각한다면, 각 참여자는 상대의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선택을 한다. 즉,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대 효용 이론은 이러한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기대 효용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으로 전망 이론이 있다.

㉡전망 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익과 손실의 문제, 즉 기준점에서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기준점은 개인의 상황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개념이다. 전망 이론은 기준점의 위치를 중요하게 보는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확실성에 대한 선호 체계가 변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하지만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만큼의 효용을 얻지 못해도 확실한 이익을 선호한다. 그러나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반대로 불확실한 손실을 감수하려고 한다. 이에 전자를 위험회피적 경향, 후자를 위험감수적 경향이라고 한다. 이때의 이익과 손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점은 절대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익도 강조한다.

전망 이론을 바탕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이해한다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게임 참여자들은 자백을 할 경우에 최소 확실한 손실 상황에 놓인다. 반면 침묵을 한다면 불확실한 이익과 손실 상황에 놓인다. 한편 게임 참여자는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값을 상대방과 비교하여 상대적 이익을 고려한다. 이에

각 참여자는 최대 효용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한편, 전망 이론은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실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본다. 이익을 본 사람은 기존의 기준점이 쉽게 상승 조정되어 기준점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손실을 본 사람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위험감수적 선택을 해서라도 본전을 되찾길 바란다. 이는 과거의 기준점이 손실 상황을 수용하지 못해 고착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처럼 사람은 손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기준점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현상유지 경향이라고 부른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새로운 상황을 도입할 수 있다. 게임 참여자들이 선택을 한 뒤에, 서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전망 이론에 따른 이상적인 상황에 입각한다면, 게임 상황은 최초 게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10.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망 이론에서 사람은 손실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이다.
- ② 절대적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과 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③ 기준점은 확실성에 대한 선호 체계에 영향을 받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 ④ 전략적인 선택 결과로 이익을 본 사람은 과거의 기준점이 쉽게 고착된다.
- 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여 세운 전략은 상대방에게 예측 당할 것을 예측하여 바뀔 수 있다.

11.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침묵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 ② 자백은 최대 이익을, 침묵은 최대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다.
- ③ 참여자 한 명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으면, 그 상대방은 최소한의 형벌만을 받는다.
- ④ 참여자의 의사 결정은 상대방의 형벌에 영향을 주는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⑤ 절대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 자백을 선택할 수 있다.

1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초의 게임에서 참여자 모두가 자백을 했을 경우, 현상 유지 경향에 의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침묵하는 참여자가 나타난다.
- ② 최초의 게임에서 참여자 모두가 자백했을 경우, 모든 참여자는 위험회피적 경향에 의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침묵한다.
- ③ 최초의 게임에서 참여자가 각각 자백과 침묵을 했을 경우, 침묵한 참여자는 위험감수적 경향에 의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자백한다
- ④ 최초의 게임에서 참여자가 각각 자백과 침묵을 했을 경우, 자백한 참여자는 위험회피적 경향에 의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침묵한다.
- ⑤ 최초의 게임에서 참여자가 각각 자백과 침묵을 했을 경우, 참여자 모두는 현상 유지 경향에 의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최초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다.

13.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상의 A국과 B국은 핵 비축과 관련하여 협력 논쟁을 겪고 있다. 이때 협력 내용은 양국의 비핵화이다.

아래 표는 각국의 협력과 배반에 따른 경우의 수를 제시한 것으로, 괄호 안 숫자는 해당 경우에서의 이익과 손실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B국의 협력	B국의 배반
A국의 협력	(50, 50)	(-100, 100)
A국의 배반	(100, -100)	(-50, -50)

(A국, B국)

이때, A국은 B국이 협력할 확률을 $\frac{1}{2}$ 로, B국은 A국이 협력할 확률을 $\frac{2}{5}$ 로 예상하고 있다.

(단, 선택에 대하여 배반에 따른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가정한다.)

- ① ㉡에 따르면, A국은 배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 ② ㉡에 따르면, A국이 배반했을 때 기대 효용은 B국이 배반했을 때 기대 효용과 같다.
- ③ ㉡에 따르면, A국이 협력했을 때 기대 효용은 B국이 협력했을 때 기대 효용보다 더 크다.
- ④ ㉢에 따르면, 양국이 모두 배반했을 때 A국의 상대적 이익은 양국이 모두 협력했을 때와 같다.
- ⑤ ㉢에 따르면, A국이 배반했을 때 B국이 협력을 한 상태라면, A국의 상대적 이익은 절대적 이익의 두 배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혈액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의 반복에 의해 생성된 압력에 따라 혈관을 흐르면서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 탄소를 운반한다. 이산화 탄소를 운반해 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에 들어가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간다. 폐에 들어간 혈액은 폐포에서 이산화 탄소가 제거되고 체내로 유입된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이 끝난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한다. 이후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여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임시적으로 체외에서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혈액 도관은 환자의 혈관과 산화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혈액이 산화기로 이동할 수 있게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이다. 혈액 도관과 펌프를 통해 혈액이 체외에 있는 산화기로 이동하면 산화기는 그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다. 이때 산화기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이 기능한다.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하여 산소를 상대적으로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이산화 탄소를 같은 방식으로 밖으로 배출시킨다. 이 과정을 거친 혈액은 다시 펌프의 힘으로 혈액 도관을 따라 혈관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에크모는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VA 방식은 혈액을 대정맥에서 빼낸 뒤,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줌으로써 체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VV 방식은 혈액을 대정맥에서 빼낸 후,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방식은 심장과 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달리 선택된다.

한편,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을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가진다.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며, 응고될 가능성이 높아 혈전이 생성되어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등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14. 에크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체 외부에서 작동하는 임시적인 인공 장치이다.
- ②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스 교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혈액 속 산소가 체내로 공급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 ④ 혈관에 혈액 도관을 연결하여 산화기로 혈액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⑤ 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 있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5. ㉠과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혈액이 폐동맥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다.
- ② ㉡은 ㉠과 달리,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 ③ ㉡은 ㉠과 달리,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방식이다.
- ④ ㉠과 ㉡은 모두 분압차를 이용하여 분압이 높은 산소를 혈액으로 이동시킨다.
- ⑤ ㉠과 ㉡은 혈액 도관이 혈액을 넣기 위해 삽입된 혈관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공 심폐기는 심장 수술 중 심장과 폐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체외순환 장치이다. 이 장치는 환자의 대정맥이나 우심방에서 혈액을 빼낸 뒤 펌프를 통해 압력을 형성하여 산화기로 옮긴다. 이후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대동맥으로 다시 주입하여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킨다. 한편, 수술 과정에서 심장이 멈춰 있어야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심정지액을 사용하여 심장을 정지시키고 심근을 저온 상태로 보호한다.

- ① 인공 심폐기가 환자의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는 이유는 해당 혈액이 체내에서 생성된 이산화 탄소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② 펌프는 압력을 생성하여 혈액을 계속해서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심장의 작용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산화기가 산소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인공 심폐기의 산화기는 혈액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④ 산소가 공급된 혈액이 대동맥으로 주입된다는 점을 통해서, 인공 심폐기는 VA 방식의 에크모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 인공 장치임을 알 수 있겠군.
- ⑤ 심정지액은 외부에 노출된 혈액이 응고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체외 순환장치가 가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보유(保有)하고
- ② ㉡: 구성(構成)되지
- ③ ㉢: 주유(注油)하는
- ④ ㉣: 상승(上昇)하며
- ⑤ ㉤: 진행(進行)되고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날 밤은 8월 15일, 보름날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달빛은 땅에 가득하였다. 유년이 ㉠달을 우러러보며 동료들에게 탄식했다.

“이 달은 마땅히 내 부모처자를 비추고 있을 것인데, 나의 부모처자 또한 이 달을 보고 반드시 나를 생각하리라.”

유년의 말에 10여 명의 남자들이 마주보고 통곡하였다.

“영철이! 자네는 부모가 조선에 있으나 여기서 처자식을 두었으니 돌아가려는 마음이 우리들과는 다르겠지?”

유년의 묻는 뜻이 사뭇 조심스러웠다. 영철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짐승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을 향해 둔다는데, 어찌 이곳에 처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잊을 수 있겠는가? 내 고국에 살아 돌아가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뵈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네. 다만 내가 전에 도망치려다가 붙잡혀 두 번이나 옥을 당했으니 이제 만일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유년이 말했다.

“요동의 육로(陸路)는 막힌 지 오래지만, 뱃길이 있잖은가? 듣자니 조선의 사신이 등주(登州)까지 배로 와서 육로로 황도에 간다고 하네. 이제 내가 자네와 함께 도망하여 등주까지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자네는 조선의 사행선을 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 뜻은 어떠한가?”

“등주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하나?”

“내가 전쟁터를 쫓아다닌 지 오래고, 이 후금 땅의 산천 형세를 잘 알고 있네. 게다가 이 말들은 천리마여서 4, 5일 부지런히 달리면 여길 벗어날 수 있을 걸세.”

이 말에 우리가 모두 뿔 듯이 기뻐하였다. 다만 유년은 영철이 처자식 때문에 머뭇거리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여 영철의 기색을 살피며 말했다.

“내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모두들 아리뭇다고 하지. 등주로 돌아가면 내 누이동생을 자네에게 시집보내겠네. 큰누이가 시집갔다면 작은누이라도 반드시 자네에게 시집보내겠네.”

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하였다. 영철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술에 섞으니, 유년 또한 그러하였다. 술을 나눠 마신 뒤 일행은 ㉡달에 걸치고 굳게 맹세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탈출을 강행한 유년과 영철은 후금의 땅에 벗어나 영원(寧遠) 땅에 도착한다.

영원성에 잠시 머물던 영철은 유년을 따라 등주(登州)로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머물렀다. 유년의 집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영철의 마음에는 별로 즐거움이 없었다. 점차 시간이 흘러

가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기약**은 없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우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영철의 마음을 눈치 챈 유년이 영철을 위로하였다. 이때 유년이 술잔을 잡고 ㉠달을 가리키며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후금 땅에서 중노릇하고 있을 때, 영철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탈출할 수도, 살아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A]** 다. 그때 저 달을 가리켜 등주로 돌아가면 나의 누이를 영철의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제 이 달이 아직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이 말을 들은 유년의 부모는 딸과 영철의 결혼을 허락하였다. 결혼하기 며칠 전 유년의 누이동생이 영철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시부모를 뵈는데, 저는 아직 뵈지 못한 채 혼례를 올리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영철은 이 말을 듣고 화공(畵工)을 청하여 부모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여인은 그림을 보더니 마치 시부모를 뵈 듯이 절하였다. 며칠 뒤 영철은 결혼식을 올렸다.

영철 부부의 **이웃 사람들은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영철을 불렀다. 그리고 **조선의 춤**을 추게 하고 조선의 노래도 부르게 하고 옷감을 상으로 주곤 하였다. 영철의 집안 살림도 점차 넉넉해져 갔다. 영철은 유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었으니, 이름을 득달(得達)과 득길(得吉)이라 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남쪽 등주에서 **뜻하지 않게** 영철은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영철의 가슴 한 편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무심한 세월을 한탄하고 있었다.

1630년, 영철이 등주에 정착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해 10월, 조선의 진하사 선박이 북경으로 가기 위해 등주에 머물렀다. 뱃사공 중에 이연생(李連生)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영철과 같은 고향 마을 사람이었다. 영철은 조선의 사행선이 등주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무슨 소식이나 얻을까 하여 배를 찾아갔다. 무심코 배를 둘러보던 영철은 배 위에서 한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옛 고향 친구 이연생이었다. 영철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연생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처음에는 연생이 영철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영철임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반가워하다가 서로의 소식을 물었다. 연생은 그토록 궁금해하던 고향 소식을 영철에게 전해 주었다. 그 내용은 곧, 영철의 아버지는 안주성 전 투에서 전사하였고, 할아버지는 동생 영화(永和)의 아들 이룡(爾龍)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외가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영철은 **10여 년 만에 듣는 가족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한참 뒤 정신을 수습한 뒤에 영철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연생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

“여보게, 연생이! 내가 후금 땅에서 도망하여 구사일생으로 이곳 등주까지 온 것은 오로지 이곳에서 조선의 사행선을 얻어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네. 이제 천만다

행으로 친구를 만났으니, 원컨대 자네는 제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게.”

-작가 미상, 「김영철전」-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철은 고국에 있는 처자식과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영철은 유년과 탈출을 의논하기 이전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적이 있다.
- ③ 영철은 유년의 누이동생을 위해 화공을 청하여 자신의 친부모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 ④ 영철은 고국으로 갈 수 있는 배가 등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 ⑤ 영철은 북경으로 가는 배 위에서 같은 고향 친구를 우연히 발견했다.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년은 ㉠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떠올리는 사람과의 과거 시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떠올린 사람은 모두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를 통해 확인된다.
- ③ 영철은 ㉠을 바라보면서 떠올린 사람을 ㉢를 바라보면서 잊으려고 하고 있다.
- ④ ㉢에 절하는 사람들과 ㉢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두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나타난다.
- ⑤ 유년은 ㉠을 보고 떠올린 사람에게 ㉢를 가리키면서 자신과 영철이 ㉢에 절하며 맺은 약속을 말하고 있다.

20. [A]와 [B]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발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압축하여 대상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A]에서 과거 이야기는 현재 대화에서 주장하는 바의 근거로써 나타난다.
- ③ [B]는 서술자가 인물들 간 대화 내용을 압축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B]에서 서술자는 영철의 과거 이야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⑤ [B]에서 과거 이야기는 인물의 앞으로 행동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여 사건 전개를 촉진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철전」은 16~17세기의 동아시아 전란 상황을 배경으로, 김영철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여기서 김영철은 영웅이나 이인(異人)처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당대 하층민에 속한 인물이다. 즉, 이 소설은 김영철이 전란 상황에서 당대 하층민이 겪은 이산, 군역의 고통 등을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한 민중의 개인사가 당대 정치·사회에 의해 지배받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① 영철이 ‘전쟁’에 맞서기 보다 ‘도망’을 고민하는 것은, 해당 인물이 동아시아 전란 상황에서 역적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하겠군.
- ② 영철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은 동아시아 전란에 휘말려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층민의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영철이 ‘이웃 사람’들에게 ‘잔치’ 때마다 불러 가 ‘조선의 춤’을 춘 것은 타지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그곳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여, 민족적 자존심이 훼손당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영철이 ‘뜻하지 않게’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전란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의해 당대 민중이 원치 않는 타지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경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영철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가족 소식’에 ‘통곡’하는 모습은 당대 동아시아사가 한 민중의 개인사를 이산의 고통으로 뒤덮은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하늘의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아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보오
내 얼굴 이 태도가 님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서므로
나도 입을 믿어 **판마음**이 전혀 없어
아양이야 **교태**야 지나치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보니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하겠는가
서러워 풀어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렇게는 생각마시오
맏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 봐서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때가 며칠일까
봄추위 여름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철에는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粥早飯)과 조석진지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실까
임 쪽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까지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우니 해와 달을 어떻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띠집 처마 차가운 자리에 밤중에야 돌아오니
반백 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허둥거리며 돌아다녔더니
어느새 힘이 다해 푹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 넘게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아뢰려 했는데
눈물이 연달아 흐르니 말인들 어찌 하며
정을 다 못 풀어 목조차 메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헛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로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 지는 달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 그만두고 꽃은비나 되십시오

-정철, 「속미인곡」-

(나)

⑥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밖에 크기가 한 자 가 못 되는 것은 수국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가 있고 대소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어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 주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라기,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 것을 사로 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은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옥, 「어부(魚賦)」-

*차서: 차례와 순서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관한 애석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변화한 대상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인화된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느끼는 막막함의 최초 원인이 되는 공간이다.
- ② ㉡는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 ③ ㉠은 사공에 의해서, ㉡는 용에 의해서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가 방문하고자 한 실제적인 공간이고, ㉡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위해 형상화된 공간이다.
- ⑤ ㉠와 ㉡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공간이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철의 「속미인곡」은 단일 화자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복수 화자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작품의 전개를 위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화자와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심 화자로 구분된다.

- ① ㉠의 발화는 보조 화자가 중심 화자와 구면이라는 정보와 함께 작품을 전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의 발화는 중심 화자를 위로하여, 중심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 ③ ㉣의 발화는 중심 화자에게 대상을 잊고 자유롭게 살라는 조언의 내용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 ㉡ 사이에 제시된다.
- ⑤ ㉠과 ㉡ 사이의 이야기는 ㉡과 ㉣ 사이의 이야기에서 중심 화자의 행동 원인이 된다.

2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은 물고기’는 ‘쏘라기’에 의해 ‘은과 옥’으로 삼아지는 존재이다.
- ② ‘악어’는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아 착취한다.
- ③ ‘곤어’는 ‘용’ 앞에서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메기’ 앞에서는 큰 물고기로서 위상을 갖는다.
- ④ ‘고래’는 ‘군주 내외 여러 신하’지만, ‘조류’들을 따라가면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로 삼는다.
- ⑤ ‘용’은 ‘상하에 차서’를 두지 말고, ‘가물치’ 같은 족속을 물리쳐야 ‘바다의 군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임금에 대해서 하는 작품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임금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했다. (가)는 서인이었던 작가 정철이 동인에 의해 관직에서 탄핵당해 은거하고 있던 시절에 쓴 작품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을 담기 위해 임금을 ‘임’에 빗대어 쓴 작품이다. (나)는 작가 이육이 탐관오리로부터 고통받던 백성의 현실을 고발한 작품으로, 임금이 취해야 할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 임금과 백성 간의 관계를 ‘용’과 ‘물고기’에 빗대어 쓴 작품이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임’에게 ‘아양’과 ‘교태’를 떨었던 건, ‘판마음’을 가지지 않고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겠군.
- ② (나)에서 글쓴이가 ‘용’이 취해야 할 자세를 알려주기 전에, 용이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임금의 절대적 권력을 중시한 것이겠군.
- ③ (가)에서 화자는 ‘임 쪽 소식’을 궁금해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각별한 그리움을, (나)에서 글쓴이는 ‘큰 물고기’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푸는 임금의 모습에 애달픔을 느끼고 있군.
- ④ (가)에서 ‘꿈에 임’과 재회를 방해하는 ‘닭’은 임금과 화자를 갈라놓는 동인으로, (나)에서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족속’은 백성을 착취하던 탐관오리로 볼 수도 있겠군.
- ⑤ (가) 화자는 ‘차라리 죽어’ ‘달’이 되어서라도 ‘임’을 보겠다는 표현에서, (나)의 글쓴이는 ‘용’의 ‘군주 노릇’이라는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임금을 빗대되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과부의 딸 옥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아저씨’가 이곳에서 머문다. 아저씨는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어머니는 과부는 응당 수절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나는 ㉓유치원에 가서 창가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여자 선생님이 **[풍금]**을 아주 썩 잘 타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은 예배당에 있는 풍금과는 아주 다른데, 펑 조그마한 것이지만 소리는 썩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뒷간에도 유치원 풍금과 똑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날 나는 집으로 오는 길로 어머니를 끌고 ㉔뒷간으로 가서,

“엄마, 이거 풍금 아니우?”

하고 물으니, ㉕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단다, 그건 어찌 알았니?”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똑같은데 무얼. 그럼, 엄마두 풍금 탈 줄 아우?”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껏 한 번도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은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㉖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십니다.

“엄마, 이 풍금 좀 타 봐!”

하고 재촉하니, 어머니 얼굴은 약간 흐려지면서,

“그 풍금은 너의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너의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그 풍금은 이때까지 뚜껑두 한번 안 열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금방 또 울음보가 터질 것만 같아 보여서 나는 그만,

“엄마, 나 사탕 주어.”

하면서 ㉗아랫방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중략)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㉘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풍금 소리! 그 풍금 소리는 분명 ㉙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을 타나 부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안방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다. 그러나 그때는 음력으로 보름께나 되어서 달이 낮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 한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이 지금 여섯 살밖에 안 되었지만,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풍금을 더 잘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만,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딱 아니하고 앉아서 풍금을 탔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또 노래도 훨씬 더 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어머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실을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의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는 듯했습니다. 노랫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금 소리도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요히 일어나시더니 옆에 쓌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㉚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꼭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함빡 받은 내 어머니 얼굴은 몹시도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로는 설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도 훌쩍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옥희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옥희야, 난 너 하나뿐 그뿐이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2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옥희에게 어머니가 풍금을 탈 줄 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간이다.
 - ② ㉡은 어머니에게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어머니가 가기 꺼려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어머니가 옥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내려간 공간이다.
 - ④ ㉣은 어머니가 풍금을 연주하는 곳으로, 아저씨와 옥희가 어머니의 연주를 감상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어머니가 옥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곳으로, 어머니의 오랜 고민에 대한 결단이 서서히 드러나는 공간이다.

28. [풍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의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게 만든다.
 - ② 어머니와 아저씨 간의 갈등의 해소 계기가 된다.
 - ③ 어머니의 역할 갈등에서 비롯된 내적 고민을 심화시킨다.
 - ④ 어머니가 묻어두었던 슬픈 기억을 어머니에게 환기시킨다.
 - ⑤ 어머니가 옥희는 알지 못했던 과거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어머니가 옥희의 질문에 당황하여,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 웃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은 어머니가 옥희의 질문을 불쾌하게 느껴, 침묵을 통해 옥희의 질문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은 아저씨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주에 당황하여,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은 옥희가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여, 죽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⑤ ㉤은 어머니가 옥희의 부름에 슬픔에 잠겨, 차마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로 정의되는데,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서술자는 순박하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오해하거나 사건을 의미를 적절히 헤아리지 못한다. 따라서 독자는 작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자의 말하기 너머에 있는 인물의 의도와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다.

- ① 옥희가 어머니에게 ‘풍금을 타’ 보라고 ‘재촉’하는 건 어머니의 속 마음을 적절히 헤아리지 못하여,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든 것이겠군.
- ② 옥희가 ‘울음보가 터질 것만’ 같던 어머니에게 “사탕 주어”라고 말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어린 서술자가 어머니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해 상황과 적절치 않은 요구를 한 것이겠군.
- ③ 옥희가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판단이기 때문에, 독자는 어머니가 옥희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풍금을 탄 이유를 추론해야 하는군.
- ④ 옥희가 풍금 연주를 끝마친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다고’ 생각하여 ‘천사’ 같다고 표현한 것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보다 외양에 초점을 두는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기인하겠군.
- ⑤ 옥희가 “어머니 왜 울어?”라고 물어보면서 자신도 ‘훌쩍거린’ 것은, 서술자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감정의 원인은 알지 못하는 아이라서 나타난 행동이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A]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B]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C]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김현승, 「플라타너스」-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나무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여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
- ③ 나무와 다른 자연물의 관계를 제시하여 나무의 희생정신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나무와 자연의 관계를 제시하여 이를 인간과 사회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 ⑤ 나무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나무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32.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나’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이 [B]에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아낸다.
- ② ‘여러 겹의 마음’은 복숭아나무를 [A]에서는 꺼리는 이유로, [B]에서는 이해하는 이유로 나타난다.
- ③ [A]에서 ‘나’는 복숭아나무를 ‘멀리’하다가 [B]에서 복숭아나무에 다가가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이해한다.
- ④ [A]에서 ‘사람이 앉지 못할’ 곳으로 인식된 ‘그들’은 [C]에서 ‘나’에게 복숭아나무와 교감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 ⑤ [B]에서 ‘피우고 싶은 꽃빛’은 [C]에서 ‘꽃잎’들이 ‘흩어진’ 모습으로 표현됨으로써 복숭아나무가 결실을 맺었음이 드러난다.

3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 ‘꿈’에 대해 질문하여, 대상에게 깊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2연의 ‘사모할 줄’ 모르지만 ‘있는 것’만으로 ‘그들을 늘인다’는 말에서, 화자와 대상의 일방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에서 ‘먼 길’과 ‘홀로’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과 함께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을 상기하고 있다.
- ④ 4연의 ‘함께 신이 아니’라는 말에서, 대상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발견하여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에서 ‘검은 흙이 따로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대상에게 최후의 순간을 대비해야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생태문학은 자연이 지닌 생태적 가치에 대한 주목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생명과의 공존과 연대를 선포하게 다루는 작품을 포괄한다. 생태문학은 인간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세계인 자연을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 ① (가)에서 복숭아나무의 ‘그들’을 ‘사람’이 ‘앉지 못할’ 곳으로 여겨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분리된 곳으로 여겨 공존하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가)에서 복숭아나무의 ‘눈부신’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외로웠을 것’임을 추측한 것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동안의 자신을 반성하고 있군.
- ③ (나)에서 플라타너스의 호칭이 ‘너’에서 ‘우리’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 자연에 대한 기존 태도를 반성함으로써 자연과의 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 ④ (나)에서 플라타너스와 함께 ‘길’이 다다르는 ‘어느 날’을 가정하는 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운명은 같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복숭아나무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는 표현에서, (나)는 플라타너스를 ‘지켜’ ‘이웃이 되고 싶’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자연과의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김성아

[35~37] 다음은 전문가의 강연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도지킴이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청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독도로 답사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맞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땅, 독도. 이곳에 답사를 가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지도는 독도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독도는 하나의 섬으로만 이루어진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도는 서도와 동도로 불리는 두 개의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나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여러분이 가게 될 곳은 동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울릉도에 있는 사동항에서 배를 타고 동도 선착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독도는 자연 보호구역이자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급경사의 섬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입도는 동도 선착장으로만 제한됩니다.

자, 독도 땅을 밟아 본 뒤에는 배를 타서 독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선회 관람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독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를 보시면, 독도에는 수많은 생물 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회 관람을 하면서 꿩이 갈매기나 바다제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한편, 여기서 포유류는 한 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동물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바로, 삼살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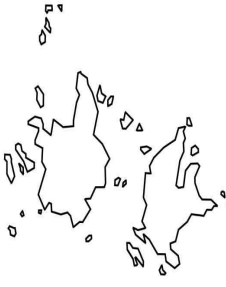
(㉤자료 제시) 이 사진처럼 삼살개는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인데, 무려 독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살개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독도경비대와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는 10대 독도지킴이로서 ‘우리’와 ‘나라’가 있습니다. 선회 관람하면서 ‘우리’와 ‘나라’를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독도의 독특한 지형을 소개하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태도 변화를 추구하고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강연 내용을 청중과 관련지어 설명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고 있다.
- ④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낯선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36. 다음은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자료 1]은 독도가 두 개의 섬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② [자료 1]은 울릉도에서 출발하여 동도 선착장까지 가는 배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③ [자료 2]는 선회 관람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동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④ [자료 3]은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유일한 포유류 동물인 삼살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⑤ [자료 3]은 삼살개가 독도경비대와 함께 독도지킴이로서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37.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보 기>

학생: 강연자님.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 _____

강연자: 그 부분은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 질문은 쉬는 시간이 끝난 이후,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 ① 선회 관람은 어떤 방향으로 독도를 도는 겁니까?
- ② 독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 ③ 독도가 자연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동도 선착장으로만 입도가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⑤ 삼살개가 독도지킴이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8~42] (가)는 ‘천체 관측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에 학교에서 정기 관측회 주관하잖아. 이번 활동은 우리 천체 관측 동아리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대. 근데, 지원이 저조해서 우리 동아리에서 홍보문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학생 2: 잠깐만,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학교에서 이미 쓴 글이 있지 않아?

학생 1: 맞아. 근데 그 글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새로 홍보문을 작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었어.

학생 3: 학교에서 쓴 홍보문? 난 본 적 없는데, 한 번 보여줄 수 있어?

학생 2: 잠깐만, …… 여기.

학생 3: 응. ‘정기 관측회 활동은 천체를 관측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고, 관측 장비에 대한 광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확실히 좀 그렇네. 너무 학술적인 말로 써서 딱딱하게 느껴질 법도 해. [A]

학생 2: 사실 나도 좀 그렇긴 했어. 우리 동아리 사람들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반 학생들은 해당 홍보문에 큰 거부감이 느껴졌을 거 같아.

학생 1: 기존의 홍보물이 학술적인 표현이 주가 돼서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졌다는 이유로 지원이 저조해졌다고 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번 홍보물에선 표현을 좀 달리 바꿔 볼까?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을까?

학생 3: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어때?

학생 2: 문학적인 표현?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문에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학생 3: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필수적인 정보는 담되, 표현만 와닿게 쓰는 거지. [B]

학생 2: 그래도 글의 목적과 잘 어울리지 않을 거 같은데.

학생 3: 그러면, 우리가 천체 관측 동아리니깐 천체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을 쓰는 건 어떨까?

학생 2: 음. 그러면 괜찮을 거 같네. 관련성이 생기니깐.

학생 1: 나도 찬성이야. 근데, 지금 너무 표현 방식에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같아.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좋을 거 같아?

학생 3: 나는 보통 홍보문을 볼 때 ‘이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봐. 근데, 기존 홍보문은 교육적 의의만 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

학생 2: 정기 관측회를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쓰는 건 어떨까?

학생 3: 근데, 이건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교적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려고 한 사람에겐 부담이 돼서 오히려 신청률이 떨어지거나 활동의 본래 목적이 변질될 우려도 있잖아.

학생 2: 근데, 이 활동 자체가 친목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관측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즉, 친목은 부가적인 의의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깐 반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학생 3: 그래, 알겠어. 덧붙여서, 이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는 것도 적으면 어떨까?

학생 2: 응 괜찮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홍보물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보자.

학생 1: 그럼 기존의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오늘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번 글을 써볼게. 오늘은 우선 여기서 회의 마치자. 다들 고생했어.

(나)

㉠ 창공에 빛나는 별을 따라가다 넋을 놓아보고 싶지 않나 요? 항성이 내뿜는 밝은 빛에 빠져보고 싶지 않나요? ㉡ 그런 당신을 위해 ‘정기 관측회’를 준비했습니다.

정기 관측회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마치 별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모두에게 제한 없이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에 이루어지고, 장소는 학교 뒷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그날이 오면 뒷산에 높이 피어오른 별이 지도가 되어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 이 행사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교과서로만 보던 별자리를 여러분이 직접 이어봄으로써 우주의 신비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은 기억에서만 보 관되는 게 아닌, 생활기록부에 남아 영원히 기록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던 별들이 주변 별들과 이어져 하나의 별자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끊기지 않을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 사항에 있는 ‘정기 관측회 참가 신청’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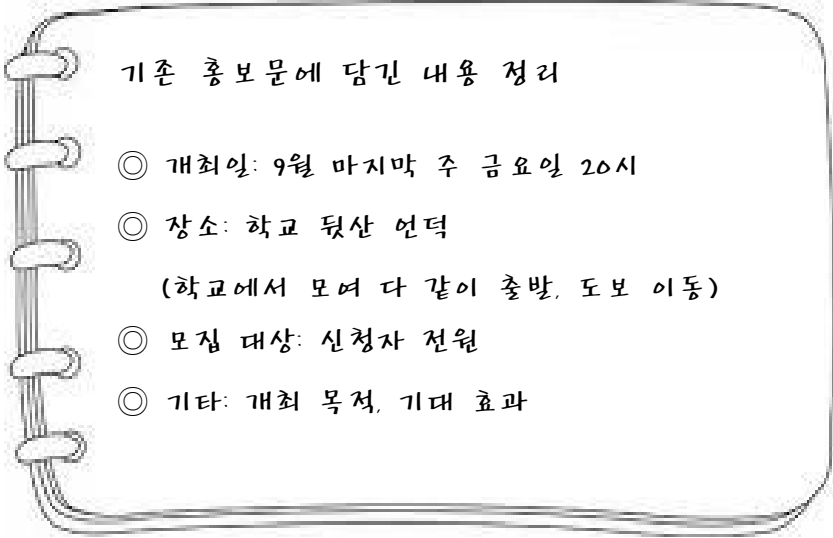
정기 관측회를 통해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뒷산에서 광활한 우주를 보고, 영원히 기록될 추억을 만들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추억을 매개하여 하나의 별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당 행사에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38.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 참여자에게 논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대화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하여 대화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 ⑤ 대화 참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39. [A], [B]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3’과 자신의 의견을 연결 지어 문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앞선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을 관련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반박하여 자신이 제시했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40. 다음은 (가)에서 ‘학생 1’이 기본 홍보문에 담긴 내용을 읽고 정리한 메모이다. 이 메모와 대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의 2문단에서는 ‘학생 3’이 제시한 필수적인 정보를 담자는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홍보문에 담긴 개최일과 장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하였다.
- ② (나)의 2문단에서는 ‘학생 3’이 우려한 신청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홍보문에 담긴 모집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전체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을 써서 반영하였다.
- ③ (나)의 3문단에서는 ‘학생 2’가 언급한 친목이 부가적인 의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홍보문에 없던 기대 효과로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 ④ (나)의 3문단에서는 ‘학생 2’가 언급한 학술적 문제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홍보문에 담긴 개최 목적에 관한 내용 전체를 표현을 바꿔서 반영하였다.
- ⑤ (나)의 3문단에서는 ‘학생 3’이 언급한 생활기록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홍보문에 담긴 기대 효과에 있던 교육적 의의를 대신한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41.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질문의 방식을 통해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② ㉡: 앞 질문에 직접 대답하여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③ ㉢: 일정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 ④ ㉣: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 ⑤ ㉤: 예상 독자에게 신청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신청 과정과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42. 다음은 (나)의 5문단의 초고이다. 5문단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 활동을 통해 뒷산에서 우주를 보고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률이 저조하여 작성된 글이므로, 해당 행사에 많은 신청이 있길 바랍니다.

- ①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참여 독려 내용을 삭제한다.
- ② 글을 일관성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
- ③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에서 언급한 행사 명칭을 추가한다.
- ④ 글에서 언급했던 기대 효과가 모두 드러나도록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예상 독자와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어를 변경한다.

-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낀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시스템 개편을 건의하고자 함.

[초고]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수강 신청과 관련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이 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먼저,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유의 사항에 관한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자체는 유익하지만, 문제는 팝업창이 과도할 정도로 자주 뜬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새로고침을 하거나 뒤로가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뜨는 팝업창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때마다 학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경우가 매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수강 신청 방식은 전 학년의 모든 재학생이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전 학생이 모이니 서버가 마비되어 수강 신청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의 시간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습니다. 현재 학교 수강 신청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함

니다. 이에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피시방에 가서 컴퓨터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시방은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미성년자 출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집에 마땅한 전자기기가 없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모바일로 수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수강 신청에 있어 다른 학생보다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 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수강 신청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강 신청 시스템 개편을 건의합니다. 먼저,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보지 않기.’ 등 설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방식에 변화를 주어서 한순간에 모든 학생이 홈페이지에 몰리지 않도록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수강 신청 시간에 변동을 주었으면 합니다.

[A]

바쁘실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3.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강 신청 도입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 ② 수강 신청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 학년별로 느끼는 불편함을 제시해야겠어.
- ③ 수강 신청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글을 써야겠어.
- ④ 수강 신청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글에 제시해야겠어.
- ⑤ 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 신청 시스템을 개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44.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할 때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기대 효과를 학생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개편 전과 후의 모습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효과적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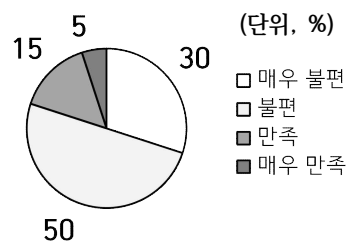
- ① 수강 신청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수강 신청 때 느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② 수강 신청 때 불편함을 해결해준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어 원만한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③ 수강 신청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학생의 편리함은 크게, 만족감은 더 크게, 학업 성취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 ④ 수강 신청 시스템이 바뀐다면,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수강 신청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주신다면, 학생들이 느끼던 불편함은 편함으로, 불만족은 만족으로 바뀔 것입니다.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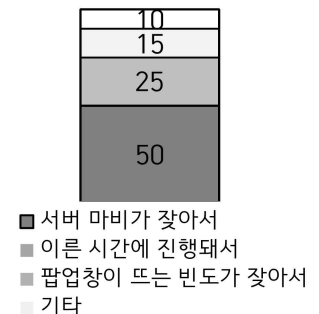
—<보 기>—

ㄱ. 수강 신청 관련 설문 조사 자료

ㄱ-1. 현행 수강 신청 만족도 설문조사
(전교생 300명 응답)



ㄱ-2. ㄱ-1에서 매우 불편, 불편에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 (단위, %)



ㄴ. 학생의 인터뷰

“수강 신청할 때마다 힘들어요. 전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동안 수강 신청 전날마다 삼촌 집에 가서 자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또, 막상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버는 먹통이에요. 서버가 다시 켜졌다고 싶으면 팝업창이 질 괴롭히고요.”

ㄷ. 지역 신문 기사

고교 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수강 신청 운영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역 ○○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 고등학교의 경우엔 수강 신청 날에 학교의 컴퓨터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 ① ㄱ-2를 활용하여, 수강 신청 때마다 서버가 마비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이 전교생의 절반이나 된다는 것을, 3문단에 추가하여 문제 상황을 부각시킨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 때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4문단의 마지막에 추가하여 나타낸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을 학년별로 나눠 신청한다면 홈페이지가 마비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5문단에 추가하여 기존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④ ㄱ-2와 ㄴ을 활용하여, 팝업창이 학생에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3문단에 추가하고, 팝업창의 유의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5문단에 보강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 날에 학교 컴퓨터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수강 신청 시간을 바꾸지 않더라도 기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5문단에 추가하여 개선 방안의 다양성을 보강한다.